보성군, 율포 해양레저 거점사업 베일 벗었다

율포 해양복합센터 설계용역 보고회 개최

보성군이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 시대 개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보성군은 김철우 보성군수, 관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율포해양복합센터 설계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시설 계획은 세계 최장 깊이 45m 스킨스쿠버풀, 생존체험장, 실내 서핑장, 수중 스튜디오, 인피니티 풀과 국내 최장 길이의 스카이워크 등이며 사계절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레저 거점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전국에서 단 두 곳이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43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보성군은 설계 용역을 거쳐 연내에 사업을 착공하고, 2024년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업 대상지인 율포해수욕장 일원은 사계절 온화한 기후가 특징이며, 자연경관이 우수한 천혜의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또한, 율포 종합 관광지가 있어 기본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보성 차밭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관광자원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율포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으로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고 율포 해변을 남해안 대표 해변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면서 "이와 더불어 주변 지역도 규모 있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벌교~장도간 테마로드 조성 사업, 국가 갯벌 조성 사업 등을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둔덕동에 '여수 2호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국비 15억 원 확보…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

여수시는 환경부 주관 '2021 수소충전소 구축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둔덕동에 여수 2호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는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총 30억 원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지난해에 여수국가산단 내에 하이넷 SPG수소충전소가 들어섰으나 원거리로 인해 시내권에서 수소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수소충전소 고장 시 대체 충전소가 없어 수소차 보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여수시는 수소충전소 도심권 추가 설치를 위해 부지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아파트나 주택 등이 없어 민원 발생 우려가 없는 둔덕동 s-oil LPG충전소(좌수영로 617) 부지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2호 수소충전소는 접근성이 높고 대체 충전소로 기능할 수 있어 수소차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COP28 유치 기원 중심도시로서 탄소중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과 미래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 '공감 톡톡' 및 '적극행정면책 현창창구' 운영

공무원 세대교체에 따른 소통 강화 및 적극행정 지원

순천시는 2021년도에 승주읍 행정복지센터 등 28개 시 소속 사업소·읍면동·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시는 사전 예방적 열린 감사 및 직원에게 힘이 되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읍면동 실지감사 기간 중 수습직원을 포함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감(사)톡톡 소통창구'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공)감(사)톡톡 소통창구'는 감사반장이 총괄하며,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법령과 업무처리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공직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업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또한 공직자의 창의적·적극적 업무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감사장 내 '적극행정면책 현장창구'도 운영한다. 비록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하더라고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 한 후 면책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활성화 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신규 공무원들의 대규모 충원으로 공직사회의 세대교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세대 간 의사소통 어려움,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경험 부족 등으로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공무원과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의 기본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남도장터 통해 '라이브 매화장터' 연다

오는 11일 오후 2시 매실농가 가공식품 온라인 판매 지원

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년 연속 매화축제 취소로 타격을 맞은 매실농가의 소득 보전에 나선다.

시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라이브 매화장터'를 연다고 밝혔다.

'라이브 매화장터'시청과 상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1일 오후 2시'네이버 쇼핑라이브'에 접속해'남도장터'를 검색해야 한다.

이번 라이브 매화장터는 유명 유튜버와 개그맨 등이 출연해 매실 가공상품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고 상품 인지도와 구매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곧바로 해소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호기심과 구매욕을 자극해 판매 촉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봄의 절정을 이루는 매화마을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는 만큼 매화마을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청자에게 아쉬움을 해소하는 선물이 될 예정이다. 시는 '라이브 매화장터'이후에도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운영하는 전남 대표 농수축산 쇼핑몰'남도장터'를 통해 매실 가공상품의 상시판매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매실농가와 매화마을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을 비대면 쌍방향 소통 판매방식인 라이브커머스로 연결해 업계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고흥군, 학교연계형(한종목)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선정

대한체육회 기금 5년간 4억원 지원

고흥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한 '학교연계형(한종목)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스포츠클럽은 축구종목으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대한체육회 기금 4억원, 군비 1억5천만원으로 총 5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사무국장·전임지도자·보조지도자 인건비와 훈련비, 용품구입비, 홍보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흥군에는 대서중학교에 학교스포츠클럽으로 고흥 FC 축구부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